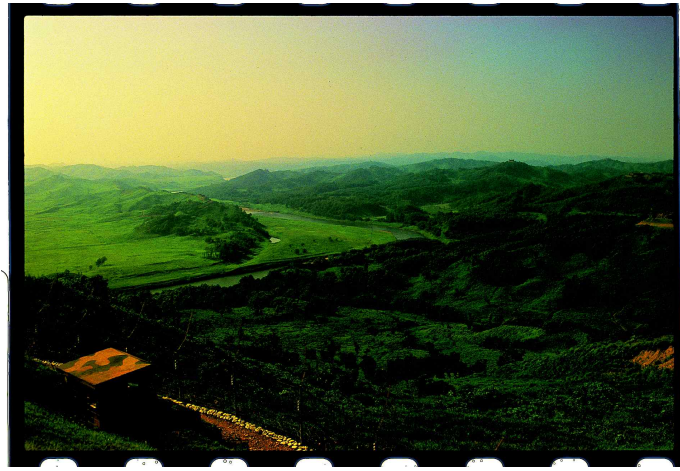


## 비무장지대로부터의 사색

사진가 이시우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공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쏘아댔다던 처절한 총성은 이제 이 골짜기에 남아 있지 않았습디다. 아무리 쏘아도 맞출 수 없었던 공포대신 처연한 신록의 해일이 산하를 덮습디다. 그리하여 봄이면 새로이 태어나는 아! 연두빛 조국’

### 적대

땅위에서 일어나는 적대행위는 대립관계에서 시작됩니다. +1과 -1은 대립됩니다. 그리고 이 경우 대립의 결과는 0입니다. 이는 마치 동쪽으로 한걸음을 간 뒤 다시 서쪽으로 한걸음을 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처음과 아무런 변화가 없는 상태로의 복귀입니다. 동쪽 일보와 서쪽 일보의 대립은 상쇄되어 사라지지만 그러나 길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길 자체는 아무런 대립도 없습니다. 길 위에 선자들의 대립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동·서 일보의 대립은 길 자체의 무관심을 방치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이번엔 동·서 일보의 대립과 길의 무관심이 대립합니다. 땅은 전쟁에 무심하지만 전쟁의 대립관계에 의해 땅 역시 대립물이 됩니다. 그리고 땅은 영토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정치적 생명을 시작합니다. 전쟁과 무관했던 자연이 전쟁의 원인이 되는 구조입니다.

### 경계

경계는 한계입니다. 어떤 것의 성질은 한계에 의해 규정됩니다. ‘나’라는 규정은 곧 나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한계는 나 아닌 것, 나의 타자이기도 합니다. 나를 규정하면서 나를 부정하는 이중성이 한계입니다. 아픔은 생사의 경계입니다. 생명 속에 들어온 죽음, 죽음 속에 들어온 생명이 아픔으로 자기 존재를 나타냅니다. 아픔이 치유되면 생이고 아픔이 심화되면 죽음입니다. 그리하여 생·사의 중심은 아픔입니다. 경계가 중심입니다. 생사의 중심이 아픔이듯이 사회 흥망의 중심도 아픔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 점에서 비무장지대는 우리의 경계가 아니라 거꾸

로 우리의 중심입니다. 경계는 남·북 그 자체이면서 남·북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타자입니다.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한반도를 영토의 경계로 선포하며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한민족 모두가 알고 있듯이 남북의 경계는 한반도가 아니라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입니다. 군사분계선을 경계로 삼지 않으면 북은 남을 수복해야 할 지역으로 볼 것이고, 남도 북을 수복해야 할 지역으로 볼 것입니다. 수복이란 말은 잃어버린 땅을 되찾는다는 것이고, 남이든 북이든 한편이 항복하고 투항하지 않는 이상 수복을 실현할 방법은 전쟁뿐입니다. 많은 이들이 통일을 수복으로 생각하는 한 땅은 가장 적대적인 존재가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장기간 경계를 인정하고 살아야 할 운명입니다.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비무장지대는 평화지대로 이름이 바뀔 것입니다. 그러나 경계로는 여전히 남습니다. 통일협정이 체결되면, 예를들어 연합제는 말할 것도 없고 연방제식으로 통일협정이 체결되더라도 평화지대는 다시 이름을 바꾸겠지만 경계로서는 여전히 남습니다. 따라서 연방제통일을 뛰어넘어 모든 체제와 제도가 통일되는 자주독립국가에 이르기까지, 그것이 가능할지 바람직할지를 별개로 하더라도, 이 경계선은 남북을 규정하면서 남북이 아닌 타자로 존재할 것입니다. 따라서 비무장지대를 어떻게 이해하는가는 남북이 스스로를 어떻게 규정하고 상대를 대할 것인가의 모든 태도를 결정합니다.

### 관성체계

베르그송은 “자유의 반대는 구속이 아니라 관성”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속은 외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구속도 내안의 자유의지를 완전히 말살하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속에 반발하고 저항하며 마침내 해방되기도 합니다.

관성 역시 외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품을 고를 때 어디선가 본 광고나 유행등의 영향을 받아서 그 물건을 고르지요. 그런데 정작 자신은 자유의지에 따라 선택한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관성은 외부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반발하지도 저항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관성으로부터의 자유야말로 진정한 자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관성체계란 외적인 것이 내면화된 체계를 말합니다.

‘비무장지대’라는 단어를 들으면 머릿속에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끝없이 이어진 철조망, 삼엄한 경계의 눈초리, 어디선가 도사리고 있을 듯한 중무장화기 등이 떠오를 것입니다. 즉 ‘중무장지대’가 연상되는 것이지요. ‘비무장지대’라는 단어를 들었는데 ‘중무장지대’가 연상됩니다. 이 같은 상태는 무엇을 의미 할까요? 사과란 말을 들었을 때 배가 떠오르면 그는 정신분열증에 걸린 환자입니다. 받아들이기 싫겠지만 우리 국민 모두는 비무장지대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정신분열증세를 나타냅니다. 그런데도 국민 거의 모두가 비슷하게 반응하기에 그것이 이상하지 않고 자연스럽습니다. 오직 한사람 문익환 목사만이 ‘비무장지대는 비무장지대야’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그에게 쏟아진 비난과 몽상가라는 조롱을 생각하면 이 관성이 얼마나 광기어린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비무장지대라는 실제의 구속에서 해방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관성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반성하고 성찰해야 합니다. 구속에 대항해서 싸우기 위해서는 총과 칼이 무기가 되지만 관성과 싸울 수 있는 무기는 오직 반성뿐입니다.

### 원한체계

분단체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분단체계는 비무장지대 너머에 있는 상대를 적으로 설정하고 있는 사회체계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나 비무장지대는 객관적인 기

능만하지 않습니다. 분단체계란 개념엔 사람들의 심리가 간과되어 있습니다. 관성체계가 내면화된 것이듯 분단체계도 내면화됩니다. 저는 이 내면화된 분단체계를 원한체계라고 부르려고 합니다. '원한'하면 떠오르는 고대 그리스의 비극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유티피데스의 『메데이아』입니다. 메데이아공주는 이아손의 사랑을 얻기 위해 왕인 아버지와 오빠를 배신합니다. 그러나 이아손은 종당에 가서 메데이아를 버리고 새장가를 갑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달은 메데이아는 이아손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복수하기로 합니다. 이아손을 죽이는 것은 오히려 그의 고통을 덜어주는 자비로운 방법이라고 생각한 그녀는 그의 자식이자 그녀의 자식이기도 한 아이들을 죽입니다. 이아손이 죽을 때까지 괴로워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메데이아』의 원한은 누구나 그 적으로 생각한 이아손이 아닌 아무런 영문도 모르고 더구나 너무나 사랑스런 자기의 자식들을 죽인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었습니다.

분단체계라면 비무장지대 너머에 있는 상대만을 적으로 설정할 것입니다. 그러나 원한체계는 북한과는 전혀 관계도 없고 오히려 사랑스런 자기국민을 빨갱이로, 좌익으로, 종북이란 이름의 적으로 만듭니다. 적을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찾습니다. 원한체계는 빨갱이를 만들어내는 전형적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우선 일정한 사람들의 속성을 혐오와 배제의 대상으로 구분해 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들 속성을 단 하나의 통일된 개념으로 집약·집중시킵니다. '빨갱이'란 단어로 이 모든 다양한 속성들은 하나의 집약된 본성이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 한 단계가 더 남습니다. 이런 '빨갱이'들이 바로 우리 '이웃에 숨어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괴상하게 생긴 외계인 E.T는 나의 밖에 있기에 위협이 되지 않고 심지어 친구가 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살아있는 괴물 에일리언은 나를 나 아닌 것으로 만드는 진정한 괴물입니다. 내안에 있기에 피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불안과 공포와 박멸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에일리언을 죽인다는 것은 자신을 죽여야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동물원에 있는 사자나 호랑이 보다 집안을 기어 다니는 쥐나 바퀴벌레가 더 치명적인 불안과 공포를 가져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적은 외부의 적이 아닌 내부의 적입니다. 원한체계가 만드는 '이웃에 숨어있는 빨갱이'란 개념은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적대의 완성입니다. 내면화된 분단체계인 원한체계는 내부의 적을 만들어내는 적대체계입니다. 이들에게 내부의 적이란 조르주 아감벤이 말한 '죽여도 죄가 되지 않는 인간'을 말합니다. 국가 간의 전쟁보다 국내의 내전이 더 큰 참상으로 연결되는 것은 이런 구조 때문입니다.

## 좌절체계

일제강점기, 해방이 올 줄 몰랐기에 많은 사람이 변절하고 좌절했듯이 통일국가, 자주독립국가 건설을 믿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역시 체념하고 좌절합니다. 욕망의 정의는 이를 수 없는 것입니다. 이를 수 있다면 그것은 이미 현실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에겐 욕망을 실현하고자 하면서도 막상 욕망이 실현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에게 욕망은 이를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져서는 안되는 것이 됩니다. 욕망이 역설적으로 좌절을 내재화합니다.

좌절이 시작되는 순간은 전체를 포기하는 순간입니다. 오지 않을 전체보다 눈앞에 쟁길 수 있는 부분만을 선택하는 순간 우리의 욕망은 오지 않은 것에서, 와서는 안 되는 것으로 바뀝니다. 전체란 부분 아닌 것이거나 부분의 총합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분밖에 볼 수 없기에 부분의 총합은 우리가 죽기 전까지도 결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즉 그것은 잘못된 방법이고 접근입니다. 전체는 부분이되 대립을 포함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노랑과 노랑 아닌 것의 통일

이 전체입니다. 그러나 '노랑 아닌 색'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노랑 아닌 색' 중에 파랑을 예로 든다면 파랑은 현실에 존재하지만 노랑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색입니다. 서로 무관심하지요. 차이일 뿐입니다. 그러나 보색관계 속에 놓이면 노랑과 파랑은 대립물이 됩니다. 노랑과 파랑을 대립물로 만든 것은 보색입니다. 보색은 특정 색이 아니라 색 사이의 관계입니다. 보색은 관계로서만 존재하지요. 그것도 대립을 전제한 관계입니다. 보색관계가 노랑과 파랑을 대립물로 만들듯이 대립관계가 대립물을 만듭니다.

전쟁과 '전쟁 아닌 것'은 대립관계에 있지만 '전쟁 아닌 것'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기에 그 중 환경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환경은 그 자체로서는 전쟁과 서로 무관합니다. 그러나 전쟁이 환경을 파괴하는 관계, 환경이 전쟁을 배제하는 관계에 놓일 때 전쟁과 환경은 대립물이 됩니다. 비무장지대가 어떤 무장도 금지하고 어떤 사람의 출입도 금지하는 지역이면 최소한 비무장지대에서는 어떤 전쟁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무장지대의 출입은 가능하며 남측비무장지대의 출입은 단 한사람이 결정합니다. 유엔사령관입니다. 그는 인민군사령관과 적대관계에 있는 당사자입니다. 비무장지대의 환경은 유엔사령관과 대립하는 게 아니라 그의 지배하에 있습니다. 유엔사령관이 인민군과 대립을 유지하는 지배통제 수단의 하나가 환경문제입니다.

우리가 비무장지대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살아온 사이에 유엔사는 이곳에서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고 있습니다. 출입금지, 환경보존은 결국 유엔사의 구조가 온존하도록 방조하는 역설을 만들고 맙니다. 비무장지대는 유엔사령관의 허가없이 들어갈 수 없어 산불 등 자연재해가 발생시 긴급대응하지 못하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곤 합니다. 환경보존은 방치가 아니라 책임있게 관리해야 합니다. 사람이 관리한답시고 손을 대기만하면 자연이 망가지니 유엔사가 차라리 출입을 막는 게 상책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유엔사가 일부러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다 해도 책임있게 관리하진 못합니다. 유엔사는 군사조직에 불과하고 환경관리는 고도의 행정업무이기 때문입니다. 유엔사령관은 환경장관이 아니라 전투사령관입니다.

평화나 경제문제 역시 적대관계에 연루되면 대립물이 됩니다. 과거에 DMZ평화공원구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평화없는 평화공원이었기에 실패했습니다. 적대관계 하에서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 적대를 가리기 위한 평화, 적대를 전가하며 적대관계를 심화시키는 평화가 될 수 있습니다. 원한 많은 남북이 싸울 가능성을 오히려 유엔사의 힘을 빌려 막을 수 있다는 생각도 꽤 합리적인 견해처럼 통용됩니다. 그러나 유엔사의 적대적 성격은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비무장지대에 남북경제공동체를 만들자는 구상이 비무장지대를 넘어 개성공단으로 실현됐지만, 그리고 지금은 폐쇄되었지만 다시 복구하려면 비무장지대의 출입을 통제하는 유엔사와의 문제가 원활히 풀려야 합니다. 근본적 대립관계를 풀 수 있어야 환경이든, 경제든, 평화든 그 부분적 시도가 의미를 갖습니다.

씨앗은 꽃을 피우기 위한 계기이고, 꽃은 열매를 맺기 위한 계기이며, 열매는 다시 씨앗을 틔우기 위한 계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열매만을 취하려 하고 꽃만을 완상하려 합니다. 대립관계를 무시한 채 이루어지는 부분만을 향한 집착이 좌절을 만들어냅니다. 열매를 취하더라도 씨앗을 남기고 다시 땅을 갈아야 하듯 부분은 전체의 대립적 계기임을 간과해선 안되겠습니다. 좌절에 빠지는 것은 전체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실패에도 성공의 기회가 있고, 부정에도 긍정의 측면이 있습니다. 금방이라도 성공할 것 같은 고착된, 분리적 사고가 결국 우리를 좌절케 만듭니다. 그리고 좌절도 반복되면 내면화 됩니다.

## 결심

앞에서 저는 단선적 규정하기에 대해 반성이 더 중요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제는 반대로 반성보다 규정이 중요하다는 말을 하고자 합니다. 모순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헤겔 변증법의 핵심을 한 단어로 요약하라면 '반성'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헤겔 논리학의 순서는 '규정'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반성의 목적은 결국 새로운 규정을 찾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규정하기가 일면적이고 단선적일 수밖에 없으나 규정하지 않으면 반성도 시작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규정하기는 오류와 불완전과 편견과 준비부족의 상태에서 행하는 결심하기의 다른 이름입니다. 결심 없는 반성, 규정 없는 반성은 사건의 이런 측면, 저런 측면을 신중히 파악하는 데는 도움이 되나 마치 벽에 걸린 정물화를 감상하듯 방관을 자초할 수도 있습니다. 실천하지 않고 파악할 수 있는 진리란 없습니다. 지행합일은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단행합일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안다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결단해야지 행합니다. 그리고 행한 뒤 더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규정하기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규정만하고 반성하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것입니다. 따라서 규정 없는 반성, 반성 없는 규정, 이 모두는 잘못된 것입니다. 규정과 반성, 반성과 규정의 통일만이 진리를 찾는 방법입니다.

결심은 모든 가능성을 접고 현실의 한 점에 나를 세우는 일입니다. 입각점이라고 합니다. 결심이란 그래서 외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불완전과 준비부족과 결핍을 알고 결심한 자만이 반성할 수 있습니다.

## 계산

앞서 저는 부분이 아닌 전체의 중요성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단번에 전체를 아는 그런 신통한 방법은 없습니다. 내가 결심한 한 점으로부터 시작하여 전체를 찾아가는 과정이 계산하기입니다. 우리는 계산적인 사람을 당연히 부정적으로 보지만 계산 그 자체는 위대한 것입니다. 저는 계산의 철학적 특징을 네 가지로 파악합니다.

첫째, 차이를 동일로 만듭니다.  $1+1=2$  라는 계산에서 1과 2는 전혀 다른 것이지만 계산을 통해 동일해집니다.

둘째, 무한과 유한을 통일시킵니다.  $1+1=2$ 에서 후항인 2는 하나뿐이므로 유한합니다. 그러나 전항은  $1+1$ ,  $2+0$ ,  $3-1$ ,  $4-2$ ,  $5-3$ ...으로 무한합니다. 계산은 유한과 무한을 하나로 통일시킵니다. 유한과 무한은 상호대립물인데 대립물이 통일되는 것입니다.

셋째, 동일을 차이로 만듭니다. 주의력을 잃지 않으셨다면 이는 첫 번째로 언급한 차이를 동일로 만든다는 특징과 모순됨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앞의 무한=유한에서 단 하나의 예외가 눈에 띕니다.  $2+0=2$ 입니다.  $2=2$ 는 계산이 필요 없는 동어반복입니다. 같은 것끼리는 교환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다른 것과의 교환'이 계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젠 같은 것을 다르게 만드는 것이 계산이 됩니다. 계산관계에 2가 들어왔기 때문에 0이 요청된 것입니다.  $1+1=2$ ,  $3-1=2$ ...등이 외적관계라면  $2+0=2$ 는 내적관계입니다.  $2=2+0+0+0+0+0$ ...처럼 0을 아무리 많이 더해도 이 등식이 의미하는 바는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0은 의미체계에서 보면 무의미한 숫자입니다. 그러나 무의미한 채로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무의미한 숫자가 우주를 덮을 만큼 무한하다면 어떨까요? 의미체계로는 보이지도 파악되지도 않는 존재가 의미를 덮어버립니다. 그리하여 2와  $2+0$ 은 다릅니다. 이처럼 계산은 동일을 차이로 만듭니다. 차이를 동일로 만드는 첫 번째 특징과, 동일을 차이로 만드는 세 번째 특징이, 모순되면서도 공존할 수 있는 것은 계산관계라는 기반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노랑과 파랑이 무관한 차이였지만 보색이란 관계

에 들어가면 대립물이 되는 것과 같은 원리이지요.

넷째, 그리하여 계산은 기적을 만듭니다. 관성과 상식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은 차이가 동일해지고 대립물이 통일됩니다. 이 모두가 기적입니다. 과거시대에 기적이란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우연에 의해서만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장자』 「소요유」편에 나오는 대붕이란 새는 한번 땅을 박차고 날면 땅 끝까지 구만리장천을 날며, 날개가 해를 가려 땅이 밤처럼 어두워진다고 했습니다. 이런 새는 기적이 아니면 나타날 수 없겠죠. 그러나 인천공항에서는 3분에 한 대씩 이런 대붕이 날아오릅니다. 구만리장천을 날아 지구 반대편으로 사람을 실어 나르고 해를 가려 땅에 그림자를 드리우기도 합니다. 계산이 만들어 낸 기적입니다. 근대는 기적이 일상이 된 세기입니다.

한 점에서 시작된 계산은 차이를 동일로, 동일을 차이로, 무한을 유한으로, 유한으로 무한으로 통일시킵니다. 그리하여 계산은 부분에서 전체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복핵과 평화협정을 교환하는 것이 북미회담의 결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복핵과 평화협정은 어디를 봐도 등가교환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요소입니다. 협소한 계산의 정의를 따른다면 북이 핵을 하나 포기할 때 미국도 하나를 포기하는 것이 상식이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복핵과 평화협정의 교환이라는 계산식을 모두 당연한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적의 계산식이 가능하다는 믿음이기도 합니다. 교환불가능한 것을 교환가능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계산, 기적을 만들 계산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순서

기적의 계산식을 만들었어도 그것을 실현시키는 순서가 잘못되면 계산은 현실화되지 못합니다. 지하철을 타면 7인용 좌석 있습니다. 맨 처음 앉는 사람은 한쪽 끝자리에, 두 번째 앉는 사람은 반대쪽 끝자리에, 세 번째 사람은 가운데자리에 앉으면서 가급적 거리를 서서히 좁히며 앉습니다. 누가 강제하지 않았는데도 보통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람이 첫 번째 사람 바로 곁에 앉는다고 생각해봅시다. 다른 자리가 텅텅 비어 있는데 왜 굳이 옆자리에 앉는 것인지 물어볼 수도 없고 따질 수도 없지만 경계심이 들고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 사소한 자극에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7인용좌석에 7인이 앉게 되는 것을 전체라고 가정하면 계산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7좌석은 결국 채워지게 되어 있고 그러면 그런 순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체가 실현되는 순서에 문제가 생기면 한사람이 몽니를 부리며 누워버릴 수도 있고 예상치 않은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고대 성인들이 도와 리를 실현시키는 수단으로서 강조한 게 순서입니다.

事得其序爲之禮,  
物得之和爲之樂

일이 순서를 얻으면 그것을 예라하고,  
사물이 조화를 얻으면 그것을 악이라 한다.

유교의 예약사상이란 한마디로 표현하면 순서와 배치입니다. 현대 뇌과학이 밝힌 기억시스템의 핵심도 순서입니다. 순서는 전체인 진리를 실현하는 방법이자 진리가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자가 중앙관직에 올라 태묘에 들어 제사의식을 집전하는데 일일이 다른 사람에게 묻고 처리하였습니다. 누군가가 ‘예를 잘 안다

더니 매사에 묻더라'는 소문을 냅니다. 그러자 공자가 말합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물어서 하는 것이 바로 예다.” 순서란 사람사이의 관계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터득했다는 이유로 진리의 폭력을 행사한다면 이는 순서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 간절함

결심의 입각점도, 전체의 내용도, 순서의 형식도 세상을 바꾸고자 함이며 세상이 바뀌었을 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심부터 우리는 결핍의 지점에서 시작했고, 전체를 알기에는 항상 부족하며, 순서를 찾는 일도 근신과 삼감을 따를 뿐입니다. 그리하여 간절함만이 매순간 우리를 버티게 하고 이끌어주는 힘이 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중용의 문구를 인용하는 것으로 저의 말을 마무리해야겠습니다.

간절하라.

간절하면 정성되고, 정성되면 몸에 배고, 몸에 배면 드러나고,  
드러나면 밝아지고, 밝아지면 사람을 감동시키며, 감동받은 자는 변한다.  
그리하여 오직 지극한 정성만이 세상을 바꾼다.

致曲，曲能有誠，誠則形，形則著，著則明，明則動，動則化，唯天下至誠，爲能化.